

주독자층에 따른 영조어제 언해서의 한자어 출현 양상

『어제상훈언해』와 『어제계주윤음(언해)』에 나타나는
이음절 한자어를 중심으로

이현주

한국학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 국어학 전공
leehj@aks.ac.kr

I. 서론

II. 주독자층에 따른 영조어제 언해서의 분류

III. 『어제상훈언해』와 『어제계주윤음(언해)』에 나타나는 한자어 비교

IV. 원문보충어와 원문불일치어의 성격

V. 결론

I. 서론

장서각에는 영조어제 언해서로 간행본 5종과 필사본 6종이 소장되어 있다. 이 언해서들은 처음부터 국문으로 작성된 『어제경민음』을 제외하고 모두 한문본을 국어로 번역한 책이다. 한문본을 번역한다는 것은 한문본의 한자를 국어화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글은 이러한 번역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음절 한자어가 언해서의 주독자층에 따라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지를 고찰하기 위한 연구이다.

영조 어제 언해서들은 조선시대 여타의 언해서들과 마찬가지로 철저히 원문을 직역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직역 방식을 고수함으로써 한문본의 의미를 최대한 훼손하지 않고 국어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한문본의 한자를 최대한 살려 번역문에 같은 한자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 한자가 발휘하는 문법적 성격은 같지 않다. 예를 들면, 한자 '學'의 경우, 한문본에서는 '학문'의 뜻을 지닌 명사어간이나, '배우다'의 뜻을 지닌 동사어간의 기능을 발휘하는 단어이지만 번역문, 즉 국어 문장에서는 단독으로 단어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한문본의 한자를 번역하여 국어화한다는 것은 이러한 한자들을 국어 어휘체계 속에 존재하는 한자어¹로 바꾸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어의 단어 형성에서 한자(漢字)는 대부분 단어가 아닌 형태소로만 기능한다. 국어 한자어 형태소의 가장 큰 특징이 '비자립성'이기 때문이다. 즉,

1 여기에서 '漢字語'란 말 그대로 "국어 어휘 중에서 漢字로 표기할 수 있는 단어"이다. 漢字로 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기원이 무엇이든 상관이 없다. 중국어에서 차용된 단어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한자어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들도 한자어에 포함된다. '한자어 형태소'는 말 그대로 漢字로서 국어의 단어 형성에 참여하는 형태소를 총괄해서 지칭하는 용어로 고유어 형태소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했다.

한자는 대개 형태소의 자격을 가지고 국어의 단어 형성에 참여하기 때문에 자립적인 어간으로 기능하는 경우는 드물다². 국어의 한자어가 대부분 이음절 이상으로 구성되는 것도 이 특징과 유관하다. 한자어 형태소는 이러한 비자립성을 해소하고 자립적인 국어 단어로 기능하기 위해서 다른 한자어 형태소와 결합하여 이음절의 한자어를 형성하기 때문이다³. 한문 원문의 한자가 언해문에서 국어화하는 하나의 과정으로써 이음절(二音節) 한자어(漢字語)로 교체되는 것이다. 즉, 언해본의 이음절화는 한문본 한자가 국어의 어휘 체계로 편입되는 중요한 방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한문본 영조 어제서의 한자를 언해 과정에서 어떻게 국어 어휘체계 속에 존재하는 이음절 한자어로 국어화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한자어의 출현에 영향을 끼친 요인이 무엇이었는지를 검토했다. 그 결과 언해서의 간행 목적에 따라 나타나는 한자어에 차이가 있음을 밝혀냈다. 즉, 간행 시 대상으로 하는 주독자층에 따라 언해문에 나타나는 한자어에 차이가 있었다. 이 작업을 위해서 영조어제 언해서 중 주독자층이 상이

2 산(山)·강(江)·책(冊)·향(香)·처(妻)·죄(罪)·상(賞)·동(銅)·난(蘭)·법(法)·문(門)·벽(壁)·병(病)·복(福)·색(色)·신(神)·암(癌)·약(藥)·예(例)·왕(王)·잔(盞)·점(占)·정(情)·종(鐘)·홍(興)·형(兄) 등이 자립형태소로 존재하는 한자어 형태소이다. 대개 고유어에 그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을 때, 그 의미를 담당하는 한자어 형태소는 자립형태소로 기능할 수 있다. 『우리말큰사전』에는 일음절 한자어로서 자립적인 명사 어간으로 기능하는 단어가 120개 정도 발견된다. 일상적인 국어생활에 쓰이지 않는 학술용어는 제외한 숫자이다.

3 대부분 비자립 형태소로 존재하는 한자어 형태소가 비자립성을 해결하고 자립적인 국어 어간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첫 번째는 다른 한자어 형태소와 결합하여 二音節 이상의 한자어를 형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고유어 파생접사와 결합하여 자립적인 국어 단어를 형성하는 것이다. “国家, 祖父, 父親”的 경우처럼 二音節 한자어를 이루는 경우가 전자의 예이고, “골草, 찰穀, 햇穀, 풋草, 햇筍, 告하다, 避하다”처럼 고유어 파생접사와 결합하여 자립성을 획득하는 경우가 후자의 예이다. 이현주, 「한자어 어기와 고유어 접사성 형태소의 결합에 대한 통시적 고찰」, 『정신문화연구』 141(2015) 참조. 이현주, 『어제속자성편(언해)』 이음절 한자어의 특징, 『정신문화연구』 145(2016) 참조.

한 『어제상훈언해』와 『어제계주윤음(언해)』를 대상으로 언해문에 나타나는 이음절 한자어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II. 주독자층에 따른 영조어제 언해서의 분류

장서각에 소장된 필사본 6종과 간행본 5종의 영조어제 언해서⁴는 판종, 출현문자, 한문본과의 합철 여부, 주독자층에 따라 〈표1〉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표1〉에서 제시한 분류 기준 중 ‘판종’, ‘문자’, ‘한문본 합철’이 언해서의 형식적인 기준이라면 ‘주독자층’은 내용적인 기준이다. 따라서 주독자층이 언해문의 내용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번역은 그 목적에 따라 번역의 방향이 결정되지 않을 수 없다. 즉, 번역서를 간행하게 된 목적에 따라 번역의 내용이 결정된다는 뜻이다. 번역서가 특수한 계층의 특별한 교육 목적을 위해 간행할 때와 일반 대중을 상대로 대중적인 내용을 전파하기 위해 간행할 때는 번역의 방향을 달리 상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번역의 방향성 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번역문을 읽게 될 예상 독자의 지식 수준이다.⁵ 한문본을 어느 정도로 국어화하여 제공할 것인가는 그것을 읽는 독자의 한문 능력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언해문에 나타나는 한자어도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예상 독자가 한문에 익숙하지 ○낳

4 영조어제 언해서들은 여타의 국어사 자료로 활용되는 언해서들과는 제작 과정에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추측된다. 여타의 언해서들이 책마다 다양한 언해자가 언해에 참여한 반면에, 영조 어제 언해서들은 특정한 기간에 궁중에서 특정 사관에 의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일관된 언해 방식을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5 한자어 형태론에 화자 및 한문 지식 차이가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안소진, 「한자어 형태론의 제 문제와 어휘부」, 『한국어학』 62(2014)을 참조.

표1-장서각 소장 영조어제 언해서

서명	판종	문자	한문본 합책	주독자층
『어제자성편(언해)』(1746)	필사본	순한글	한문본 분책	왕세자 및 후대 왕
『어제속자성편(언해)』(1759)	필사본	순한글	한문본 분책	왕세자 및 후대 왕
『어제경세문답(언해)』(1762)	필사본	순한글	한문본 분책	왕세자 및 후대 왕
『어제경세문답속록(언해)』(1763)	필사본	순한글	한문본 분책	왕세자 및 후대 왕
『어제조훈(언해)』(1764)	필사본	순한글	한문본 분책	왕세자 및 후대 왕
『어제(언해)』(1763/1764/1765)	필사본	순한글	한문본 분책	석년을 튜모호야: 세자 경세편언히, 어제조성면틱눈음, 어제박행원:일반 백성
『어제상훈언해』(1745)	간행본	국한문혼용	한문본 합책	왕세자 및 후대 왕
『어제훈서언해』(1756)	간행본	국한문혼용	한문본 분책	왕세자 및 후대 왕
『어제계주윤음』(1757)	간행본	순한글	한문본 합책	일반 백성
『어제경민음』(1762)	간행본	순한글	국문	일반 백성
『어제백행원』(1765)	간행본	순한글	한문본 합책	일반백 성

은 경우에는 가능한 국어화한 한자어를 이용해 언해문을 작성했을 것이고, 예상 독자가 한문에 익숙한 경우에는 그 수준에 걸맞게 한문본의 한자들이 그대로 언해문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문자, 즉 언해문의 표기 형식은 한자어의 출현에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기 문자는 16세기부터 언해서에 적용된 표기 원칙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16세기 말 교정청(校正廳)에서 간행한 경서(經書)의 언해서들은 원문에서 직접 가져온 한자어만을 한자로 표기했고, 원문을 해석하기 위해 도입한 한자어는 한글로 표기하는 엄격한 원칙을 고수했는데, 영조어제의 국한문혼용의 언해서도 이 원칙을 따랐다. 영조어제 언해서 중 『어제상훈언해』와 『어제훈서언해』도 이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며 언해문의 한자어를 표기했다.

언해서의 한자어 출현에 영향을 끼친 요소인 주독자층에 따라 영조어제 언해서들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세자, 세손을 포함한 후대 왕을 주독자층으로 하여 교육에 이용하기 위해 저술된 훈서류(訓書類) 언해서로 『어제자성편(언해)』, 『어제속자성편(언해)』, 『어제경세문답(언해)』, 『어제경세문답속록(언해)』, 『어제조훈(언해)』, 『어제(언해)』의 ‘색년을 튜모흐야’, 『어제상훈언해』, 『어제훈서언해』가 있고, 조정 대신과 일반 백성을 주독자층으로 작성된 윤음류(綸音類) 언해서로 『어제(언해)』의 ‘경세편언히’, ‘어제조성면티눈음’, ‘어제빅힝원’과 『어제계주윤음(언해)』, 『어제경민음』, 『어제백행원』이 있다.

언해서를 읽게 될 주독자층에 따라 나타나는 한자어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 글에서는 『어제상훈언해』와 『어제계주윤음(언해)』를 검토 대상으로 삼았다. 두 책은 모두 간행본으로 전자는 세자 및 세손을 포함한 후대 왕을 주요 독자층으로 하여 교육에 이용하기 위해 저술된 훈서류 언해서이고, 후자는 일반 백성을 주요 독자층으로 작성된 윤음류 언해서이다.

『어제상훈언해』는 한문본 『어제상훈』(1745, 영조 21)을 언해한 책이다. 이 책은 세자와 후왕들에게 ‘조종(祖宗)’의 가치를 가르치고 모든 판단과 가치의 기준이 왕실과 조종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교육하고자 편찬했다. 영조는 실제로 후왕의 교육에 자신이 지은 이 『어제상훈』을 직접 강독하며 경연과 후계자 교육을 주도했다고 한다. 한문본 『어제상훈』은 불분권 1책 22장의 목판본으로 되어 있는데, 언해본은 불분권 1책 46장으로서 무신자(戊申字) 및 병용 한글 목활자(木活字)로 간행되었다. 이 책은 장서각 외에도 서울대학

6 『어제경민음』은 처음부터 국문으로 작성된 책으로 언해서가 아니다. 언해서의 한자어가 한문 원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가정한다면, 번역서가 아닌 이 책은 나머지 한문 번역서 10종에 나타나는 한자어와는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것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어제경민음』의 한자어와 이 글에서 검토 대상으로 삼은 『어제상훈언해』, 『어제계주윤음(언해)』한자어와의 비교는 III장에서 기술될 것이다.

교 규장각 도서, 일사(一簋)문고, 가람문고 등에 소장되어 있다. 이 책의 서문과跋문에 따르면, 영조가 아버지인 숙종의 승하(昇遐) 26주기를 맞아서 숙종의 성덕을 추모하고 후세의 왕들에게 교훈이 될 말을 양정각(養正閣)에서 헌관(獻官)에게 받아쓰게 했다고 한다. 『어제상훈언해』는 한문 원문에 한글로 음(音)과 토(吐)를 달고 각 조목별로 이에 대한 언해문을 한 칸 내려서 신는 체제를 취했다. 언해문에 나타나는 한자어 표기는 앞서 말한 16세기 교정청의 경서 언해서 표기 원칙을 고수했는데, 한문 원문의 한자를 그대로 언해문으로 가져온 경우는 한자어를 한자(漢字)로 표기했고, 그렇지 않은 한자어는 한글로 표기했다. 『어제상훈』은 영조 어제서 중에 세자 세손을 비롯한 후왕들을 주요 독자층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글로 언해하고 언해본이 한글 목활자로 간행된 책이다. 그만큼 당시에 중요하게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⁷

『어제계주윤음(御製戒酒綸音)』은 16장 32면의 목판본[芸閣藏板]으로 한문본과 언해본이 합본된 1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1757년(영조 33) 10월과 11월에 영조가 금주령의 철저한 준수를 강조하기 위해 내린 윤음으로 영조가 짓고 교서관에서 목판으로 간행했다. 『어제계주윤음(언해)』는 한문본 중 「유대신경재이하백관윤음(諭大臣卿宰以下百官綸音)」과 「유경성부로윤음(諭京城父老綸音)」을 한글로 언해한 것이다. 첫 번째는 1757년 11월 1일에 대신(大臣)·경재(卿宰)를 비롯한 관료들에게 내린 윤음이고 두 번째는 같은 해 10월 25일에 한성부 주민들에게 내린 윤음이다. 두 윤음 모두 금주령을 내린 지 2년여가 지났지만 아직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지금 까지 금주령을 위반하여 구금된 이들을 모두 사면하지만 향후 더욱 철저하게 금주령을 시행할 것이니, 금주령 때문에 처벌받는 이가 더 이상 없도록 하

⁷ 『어제상훈언해』(2000, 장서각한글자료해제, 장서각 2-1855) 참조.

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⁸.

「유대신경재이하백관윤음」과 「유경성부로윤음」은 편찬 목적은 같지만, 윤음의 제목으로 보았을 때 대상으로 하는 주독자층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유대신경재이하백관윤음」은 대상이 ‘대신(大臣) 경재(卿宰) 이하 백관(百官)’이고 「유경성부로윤음」은 대상이 ‘경성(京城)의 부로(父老)’이다. 우리는 뒤에서 이러한 차이가 한자어 출현에 영향을 끼쳤는지도 검토할 것이다.

III. 『어제상훈언해』와 『어제계주윤음(언해)』에 나타나는 한자어 비교

『어제상훈언해』와 『어제계주윤음(언해)』에 나타나는 한자어의 출현 양상을 검토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들 문헌에서 한자어를 추출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일단 두 문헌에 나타나는 다음의 고유명사 한자어와 특정 연도를 표시하는 연간지 그리고 수사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예문 1: 고유명사 한자어

[인명] 朴익(伯益)(계주25a), 걸(桀)(계주24b)(상훈6a), 桀桀紂桀(상훈29b), 敬
경姜강(상훈5b), 孔公聖성(상훈39a), 孔公訓훈(상훈22b), 丘구(상훈39b), 沢賈黯
암(상훈30b), 唐당宗종(상훈31a), 대우(大禹)(계주25a), 동조(董子)(계주21a), 龍
龍逢방(상훈31a), 孟明子조(상훈25b), 夫부子조(상훈29a), 舜순(상훈6a)(계주24b),
英영廟묘(상훈12b), 堯(堯)(계주24b)(상훈6a), 堯堯舜(상훈6b), 禹우(상훈31a),

8 어제계쥬윤음(2000, 장서각한글자료해제, 장서각 2-1836) 참조.

牛우弘홍(상훈25b), 魏위徵정(상훈31a), 張당公공藝예(상훈15b), 齊제宣선(상훈23b), 경조(程子)(계주21b), 紂듀(상훈6a), 周ਯ公공(상훈25a), 쥐(紂)(계주24b), 曾중子조(상훈25a), 陳딘褒포(상훈15b), 鄒추聖성(상훈23b), 圃포隱은(상훈40a), 하우(夏禹)(계주29b), 漢한武무(상훈30b), 漢한文문(상훈29b), 玄현宗종(상훈31a), 徽휘宗종(상훈29b)

[국명] 唐당(상훈15b), 麗려末말(상훈40a), 宋송(상훈29b), 宋송濂濂洛낙(상훈40a), 殷은(상훈6a), 夏하(상훈6a), 夏하業업(상훈31a), 夏하宗종(상훈31a), 漢한唐당(상훈22b), 齊제人인(상훈34a), 南남唐당(상훈15b)

[관직명 및 제도명] 경윤(京尹)(계주23b), 선전관(宣傳官)(계주25b), 슈령(守令)(계주23b), 부관(部官)(계주23b), 방벌(方伯)(계주23b), 인산(因山)(계주19b), 법사(法司)(계주27b)

[연호 및 간지] 開기元원(상훈31a), 庚경子조(상훈44a), 光광武무(상훈40a), 己亥亥(상훈22b), 乙을丑丑(상훈44b), 임신년(壬申年)(계주30a), 天년寶보(상훈31a)

[서명 및 편명] 關관雎저(상훈16b), 九구經경(상훈35b), 國국朝丘寶보鑑감(상훈16a), 箕기範범(상훈22b), 大대學학(상훈41b), 도류안(徒流案)(계주20a), 禮례記기(상훈4b), 론어(論語)(계주27a), 莫昜莪아(상훈4a), 麟린趾지(상훈16b), 寶보鑑감(상훈9b), 尙서훈테(尚書訓體)(계주21b), 書서傳년(상훈15a), 說열命명(상훈42a), 小丘學학(상훈41b), 詩시經경(상훈25a), 詩시傳년(상훈4a), 易역(상훈35b), 堯요典년(상훈15a), 帝례典년(상훈15a), 祭제義의(상훈4b), 周ਯ官관(상훈16b), 周ਯ南남(상훈16a), 周ਯ易역(상훈6a), 中등庸용(상훈39b), 周례(周禮)(계주33a), 衙항伯벽(상훈25a)

[지명, 제도명, 건물명] 萊부(萊府)(계주33a), 강변칠읍(江邊七邑)(계주33a), 경兆(京兆)(계주32a), 북관륙진(北關六鎮)(계주33a), 社사稷직(상훈18a), 三삼講강(상훈34a), 常양叅참(상훈34a), 養양正經閣합(상훈5a), 유묘(有苗)(계주25a), 朝丘(상훈34a)

叡참(상훈34a), 胃牖筵연(상훈25b), 진년(眞殿)(계주21a), 八幡域역(상훈9a), 효쇼년(孝昭殿)(계주21a)

[수사] 九千世세(상훈15b), 六륙年년(상훈44a), 삼백년(三百年)(계주22a), 三
삼代代(상훈12a), 三삼目목(상훈18b), 三삼復복(상훈4b), 三삼日일(상훈4b), 삼
십년(三十年)(계주33b), 십백(十百)(계주20b), 十십三삼(상훈43a), 十십世세(상훈
15b), 十십室실(상훈39a), 十십八幡(상훈40a), 二이三삼(상훈23a), 二이十십(상훈
44a), 二이十십六륙年년(상훈43b), 一일等등(상훈39b), 칠백(七百)(계주32b), 칠
십(七十)(계주27a), 七칠年년(상훈9b), 八幡日일(상훈44b), 八幡字舛(상훈29a),

예문 1의 한자어들을 제외하고 우리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 이음절 한자어
는 『어제상훈언해』에 총 322개가 등장하고 『어제계주윤음(언해)』에 총 231개
가 등장한다. 이 이음절 한자어들이 한문본의 한자를 어떻게 국어화했는지
살피기 위해 한문본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원문일치어’, ‘원문보충어’, ‘원
문불일치어’로 나누었다.

첫 번째 유형인 원문일치어는 한문본의 한자를 그대로 언해문으로 가져온
경우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어제상훈언해』에 원문일치어는 단 하나의 예
외 없이 모두 한자(漢字)로 표기되어 있다. 이것은 16세기 말 교정청(校正廳)
에서 간행한 경서(經書) 언해서들의 한자어 표기 전통을 이은 것이다. 반면에
『어제계주윤음(언해)』는 이 원칙을 지키지 않고 원문일치어도 한글로만 표기
했다. 따라서 이 표기법의 차이는 실제로 국어화한 한자어인지 한문본의 영
향으로 언해문에 임시로 나타나는 한자어인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똑
같은 한자어가 한글로 나타나기도 하고 한자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는 단
순히 그 한자어가 한문본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인지 아니면 언해 과정에서
새롭게 나타난 한자어인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문본의 ‘黨’을
언해한 경우에 언해문의 표기가 ‘당습(상훈7a)’으로 나타나지만, 한문본의

‘黨習’을 언해한 경우에는 한자어의 표기가 ‘黨習(상훈22b)’으로 나타난다. 한문본의 ‘度’를 언해한 경우에는 ‘볍도(상훈29b)’로 한문본의 ‘法度’를 언해한 경우에는 ‘法度(상훈16b)’로 나타난다. ‘조종(상훈7a)’과 ‘祖宗(상훈6b)’, ‘편안(상훈35a)’과 ‘便安(상훈5b)’, ‘혹문(상훈7a)’과 ‘學問(상훈39a)’도 마찬가지이다.

원문일치어는 한문본의 한자를 그대로 옮긴 것이기 때문에 국어화 가능성이 가장 낮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원문일치어 중에는 실제로 이 당시에 통용되는 한자어도 있을 수 있지만, 언해문에서만 임시로 등장하는 한자어들도 존재했을 것이다. ‘念念(상훈6a), 憾然(상훈7a), 慊懃(상훈16a), 高高(상훈9a), 龍工(羣工)(계주19a), 頤眞(懷然) 乎 - (계주20b), 頤惕(懷惕) 乎 - (계주24b), 牀闌(闌闌) 乎 - (계주29a), 恒人(恒人)(계주32a)’ 등의 한자어는 현실 국어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성이 적었을 것 같고, ‘艱難(상훈5b), 天下(상훈18a), 土地(상훈30a), 人心(상훈12b), 每年(每年)(계주33a) 愛恤(愛恤) 乎 - (계주30b), 子弟(子弟)(계주32a)’ 등의 한자어는 당시의 다른 국어사 문헌에 빈번히 등장하는 것을 보면 현실 국어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유형은 원문보충어이다. 이들은 한문본에서 일음절로 존재하던 한자가 언해라는 국어화 과정에서 이음절로 변화한 한자어들이다. 앞서 말한 대로 이들은 국어 단어 형성에서 한자어 형태소가 갖는 형태론적 성격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단어들이다. 비자립적 형태소로 존재하는 한자어 형태소가 비자립성을 해소하고 국어의 자립 어간으로 기능하기 위해 이음절화 한 것들이다. 원문보충어의 경우, 언해자는 한문본의 한자를 이용해 새로운 한자어를 형성했으므로 원문일치어보다는 국어화 가능성성이 높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원문보충어의 결합구조와 그 성격에 대해서는 IV장에서 따로 다루었다.

세 번째 유형의 원문불일치어는 한문본에 등장하는 한자(漢字)를 포함하

지 않는 전혀 다른 한자어가 언해문에 등장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세 번째 유형의 한자어는 『어제상훈언해』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예문 2의 일곱 단어가 유일하다. 이에 비해 『어제계주윤음(언해)』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원문 불일치어가 등장한다.

예문 2

(가) 원문불일치어(『어제상훈언해』)

【常】**모**양(每樣)(상훈4a), 【民】**민**성(百姓)(상훈5b), 【詳】**조서**(仔細)(상훈22b),
【欽】공경(恭敬)(상훈13b), 【勞】**수고**(受苦)(상훈35a), 【亶, 誠, 寔】진실(眞實)(상훈13a)(상훈18a)(상훈24a), 【逸】**편안**(상훈35a)

(나) 원문불일치어(『어제계주윤음(언해)』)

【民, 庶民, 元元】**민**성(百姓)(계주20b)(계주33a)(계주23b), 【欽】공경(恭敬)(계주33b), 【遏密】국상(國喪)(계주26a), 【配, 投畀】귀향(歸鄉)(계주25a)(계주33a),
【基】**디위**(地位)(계주24a), 【工】**신하**(臣下)(계주23b), 【憧憧】왕록(往來)(계주21b), 【今】**이전**(以前)(계주19a), 【昔】**이전**(以前)(계주26a), 【辜】**죄인**(罪人)(계주29b), 【嗣服】**즉위**(即位)(계주25a), 【誠】진실(眞實)(계주29b), 【諸臣】**군신**(群臣)(계주22a), 【一竝】**일절**(一切)(계주20a), 【妻孥】**처조식**(妻子息)(계주28a), 【綱紀】**기강**(紀綱)(계주24a), 【生民】**민성**(民生)(계주24a)⁹

예문 2의 예들이 한문본의 한자와 무관하게 언해문에 등장한 원문불일치

9 「[]」는 한문본의 漢字이고 '()'의 漢字는 필자가 추정한 漢字이다.

【綱紀】**기강**(紀綱)(계주24a)과 【生民】**민성**(民生)(계주24a)의 경우는 한문본의 한자 순서를 바꾸었다. 언해자는 '강기'나 '생민'보다는 '기강'과 '민생'이 국어 한자어라는 언어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대국어 시기에는 구성 한자의 순서가 바뀌어도 같은 뜻으로 쓰이는 한자어가 존재했다. '慢驕, 驕慢', '放釋, 釋放', '延扽, 拖延', '狀告, 告狀', '哨瞭, 瞭哨', '悛改, 改悛', '虎石, 石虎' 등의 예가 존재한다.

표2-『어제상훈언해』와『어제계주윤음(언해)』에 나타난 한자어들의 분포

서명	원문일치어	원문보충어	원문불일치어
『어제상훈언해』	251개(78%)	64개(19.9%)	7개(2.3%)
『어제계주윤음(언해)』	143개(62.17%)	69개(30%)	18개(7.82%)

어이다. 언해자가 한문본의 한자를 살릴 국어 한자어를 생각해 내지 못하자 자신의 언어 직관에 기대어 국어 한자어를 이용해 언해를 시도했을 것이다. 따라서 세 유형의 한자어 중에 국어 어휘체계 편입 가능성은 당연히 세 번째 유형인 원문불일치어가 가장 높을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예문(2)의 한자어들은 모두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되어 있고 현대국어에서도 널리 쓰이는 한자어들이다.

이상 세 가지 유형의 원문일치어, 원문보충어, 원문불일치어에 대해 대등한 국어의 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각 유형의 단어들이 언해서의 간행 목적에 따라 달리 나타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즉, 언해서가 대상으로 하는 주독자층에 따라 나타나는 한자어에 차이가 있을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어제상훈언해』와 『어제계주윤음(언해)』는 영조어제 언해서 중 주독자층이 상이하다는 점을 앞서 지적했다. 따라서 이러한 상이한 성격의 언해서에 이 세 유형의 한자어들이 어떠한 비율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주독자층에 따라 언해자가 사용하는 한자어에 차이가 있었는지를 규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2〉를 보면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두 언해서에 이 세 유형의 한자어들이 나타나는 분포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어제상훈언해』는 『어제계주윤음(언해)』에 비해 원문일치어의 비율이 높고 원문보충어와 원문불일치어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한자어 출현의 차이는 앞 장에서 살펴본 이 두 문헌이 대상으로 하는 주독자층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주독자층이 『어제상훈언해』와 같이 세자 세손을 비롯한 후대왕들인 경우 원문일치어의 출현 비율이 높고, 『어제계주윤음(언해)』처럼 일반 백성인 경우 상대적으로 원문보충어와 원문불일치어의 비율이 높았다. 따라서 우리는 언해서의 주독자층의 성격에 따라서 한자어가 달리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⁰ 세자, 세손 등 후대왕의 교육용으로 작성된 언해서들은 한문본의 한자를 그대로 노출해 언해문을 작성한 반면에, 일반 백성을 대상으로 작성된 윤음류의 언해서들은 이 당시 국어화한 한자어를 이용해 언해문을 작성한 것이다.

즉, 언해자는 대상으로 하는 주독자층을 고려하여 한자어를 달리 사용했다. 예를 들면, 언해자는 한문본에 나타나는 ‘憧憧’을 언해할 때, 『어제상훈언해』에서는 원문일치어 ‘憧동憧동 ھ-’(상훈10a)로 언해했지만 『어제계주윤음(언해)』에서는 원문불일치어 ‘왕ㄹ(往來) ھ-’(계주21b)로 언해했다. 한문본의 ‘憧憧’은 ‘마음이 잡히지 않아 오락가락 불안하여 안정되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뜻한다. 이 ‘憧憧’에 대해서 『어제상훈언해』에서는 한문본의 ‘雨우 晙양이 雖슈調豆 | 나 心심猶유 憧동 憧동호니’를 ‘雨우와 晙양이 비록 고로나 므음은 오히려 憧동 憧동 ھ니(상훈10a)’로 언해했지만, 『어제계주윤음(언해)』에서는 한문본의 ‘又於心中不耐 憧憧憬’를 ‘또 므음 가온대 왕ㄹ 흄을 이끄지 못 ھ야(계주21)’로 언해한 것이다. 주독자층이 일반 백성인 경우 원문보

10 이현주, 앞의 논문(2016)에서는 『어제속자성편(언해)』에 나타나는 이음절 한자어를 고찰한 바 있다. 검토 결과 한문 원문의 漢字를 그대로 언해문으로 가져온 ‘원문일치어’가 전체의 77.8%를 차지하고, 한문 원문에 나오는 일음절 한자를 언해문에서 이음절로 보충한 ‘원문보충어’가 22.2%를 차지하며, 한문 원문과 전혀 무관하게 나타나는 ‘원문불일치어’는 1.3%를 차지한다. 이러한 비율은 『어제상훈언해』의 한자어 출현 비율과 큰 차이가 없다. II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제속자성편(언해)』의 주독자층도 『어제상훈언해』와 같이 세자 세손을 비롯한 후대왕들이다.

표4-「유대신경재이하백관윤음」과 「유경성부로윤음」의 한자어 분포

구분	원문일치어	원문보충어	원문불일치어
「유대신경재이하백관윤음」	52개(60.5%)	29개(33.7%)	5개(5.8%)
「유경성부로윤음」	105개(63.6%)	49개(29.7%)	11개(6.6%)

총어와 원문불일치어 비중이 높은 이유는 그만큼 이들 한자어가 일반 백성들도 이해할 만큼 국어 어휘체계 편입 가능성성이 높은 한자어였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앞에서 우리는 『어제계주윤음(언해)』의 「유대신경재이하백관윤음」과 「유경성부로윤음」은 대상으로 하는 주독자층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것이 한자어 출현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유대신경재이하백관윤음」은 대상이 '대신 경재 이하 백관'이고 「유경성부로윤음」은 대상이 '경성의 부로'이기 때문이다.

〈표4〉를 보면 두 편의 윤음에 나타나는 한자어에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경성의 부로'를 대상으로 하는 「유경성부로윤음」에 원문일치어의 비중이 조금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어제계주윤음(언해)』의 경우, 언해자는 이 두 편의 윤음에 대해 독자층을 구별해 언해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¹¹.

앞에서 우리는 언해서가 아닌 처음부터 국문으로 작성된 『어제경민음』은 언해서와 한자어의 출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측한 바 있다. 『어제경

11 윤음은 반포 대상과 다루는 소재를 기준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사책에 남기고자 개인의 감흥을 읊는 수준의 단순 내용에서부터 조정의 신료들을 대상으로 申飭하는 경우와 臣民 전체를 대상으로 전국에 반포하는 경우가 있었다. 김백철, 「영조의 윤음과 왕정전통 만들기」, 『장서각』 26(2011), 39쪽 참조. 『어제계주윤음(언해)』에 수록된 윤음들은 臣民 전체를 대상으로 전국에 반포하는 경우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 한자어 출현에 차이를 두지 않았는지는 다른 윤음 언해들에 관한 추가 연구를 통해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민음』에 나타나는 이음절 한자어를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어제상훈언해』와 『어제계주윤음(언해)』의 그것과 비교해 보았다. 『어제경민음』에 나타나는 이음절 한자어는 고유명사와 숫자를 제외하고 총 79개였다. 그리고 이 중에 26개의 한자어가 『어제상훈언해』와 『어제계주윤음(언해)』에 등장하는 한자어와 일치했다. 그런데 이 중 원문일치어와 일치하는 경우는 8개에 불과하고, 18개의 한자어가 ‘고절(경민7b), 감동(경민10b), 결단(경민3a), 경계(경민,5b), 도리(경민,8b), 방조(경민,2a), 언문(경민,7b), 은혜(경민,1a), 경소(경민,5b), 지극(경민,2b), 하교(경민,1b)’ 등과 같은 원문보충어이거나 ‘만일(경민,3b), 빅성(경민10a), 조세(仔細)(경민7b)’ 등과 같은 원문불일치어였다. 따라서 한문 원본의 간접에서 자유로운 『어제경민음』에 원문보충한자어와 원문불일치어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그만큼 언해문에 등장하는 이 한자어들이 원문일치어에 비해서 국어화한 한자어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그 당시 현실 어휘체계에 편입된 한자어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일반 백성을 대상으로 하는 윤음 언해서에 높은 비율로 등장해서 국어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원문보충어와 원문불일치어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IV. 원문보충어와 원문불일치어의 성격

우리는 앞에서 언해서의 주독자층이 일반 백성인 경우 원문일치어에 비해 원문보충어와 원문불일치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주독자층에 따라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원문일치어, 원문보충어, 원문불일치어의 국어화 정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즉, 원문보충어와 원문불일치어는 원문일치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국어 어휘체계 편입 가

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원문불일치어는 언해자가 한문본의 한자를 살릴 한자어를 생각해 내지 못하자 자신의 언어 직관에 기대어 그 당시 통용하던 국어 한자어를 이용해 언해를 시도했다. 따라서 이들은 위의 세 유형의 한자어 중 국어 한자어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 장에서는 원문불일치어와 함께 일반 백성을 주독자층으로 간행된 윤음류 언해서인 『어제계주윤음(언해)』에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원문보충어의 국어 어휘체계 편입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원문보충어는 한문본의 일음절 한자를 이용해 언해문에서 이음절의 한자어를 형성한 것인데 이음절화하는 방식에 따라 ‘유사의미 결합구조’와 ‘수식, 피수식 의미 결합구조’로 나눌 수 있다.

‘유사 의미 결합구조’는 한문본의 한자와 동의 관계나 유의 관계에 있는 한자어 형태소가 대등한 자격으로 결합한 구조이다. 예문 3은 『어제상훈언해』와 『어제계주윤음(언해)』에 나타나는 유사 의미 결합구조의 예이다.

예문 3: 유사 의미 결합구조

【各】각각(各各)(계주24a)(상훈12a), 【感】감동(感動)(계주27b)(상훈4b), 【舉】
거조(舉措)(계주33b), 【儉】검박(儉薄)(상훈7a), 【決】결단(決斷)(계주31a), 【敬】
공경(恭敬)(상훈7a), 【戒】경계(警戒)(계주21a), 【故】연고(緣故)(상훈6a), 【工】공
부(工夫)(상훈10a), 【巧】공교(工巧)(상훈25b), 【窮】궁절(窮絕)(계주25a), 【期】
약(期約)(계주23b), 【耐】인내(忍耐)(상훈5a), 【念】념녀(念慮)(상훈6a), 【論】의론
(議論)(계주32a)(상훈28b), 【當】당당(當當)(계주31a), 【度】법도(法度)(상훈29b),
【導】인도(引導)(계주27a), 【略】간략(簡略)(계주23a), 【勞】근로(勤勞)(상훈5b),
【慕】스모(思慕)(계주24b), 【悶】민망(憫悶)(상훈30a), 【放】방조(放恣)(계주27b),
【倣】의방(依倣)(계주33a), 【凡】범상(凡常)(계주21b), 【辨】분변(分辨)(상훈25b),

【保】보전(保全)(상훈18a), 【社】샤직(社稷)(계주31a), 【常】범상(凡常)(상훈15b), 【序】초서(次序))(상훈7a), 【仙】신선(神仙)(상훈31a), 【誠】성실(誠實)(계주19b), 【崇】승상(崇尙)(상훈7a), 【習】풍습(風習)(상훈22b), 【試】시험(試驗)(계주25b), 【神】귀신(鬼神)(계주25a), 【神】신기(神奇)(계주25b), 【臣】신하(臣下)(상훈25b)(계주21b), 【與】간여(干與)(계주20b), 【淫】음탕(淫蕩)(상훈5b), 【將】장초(將次)(계주20b), 【齋】진계(齋戒)(상훈4b), 【才】진조(才操)¹²(상훈25a), 【材】진조(材操)(상훈5b), 【儲】저특(儲築)(상훈30a), 【切】근절(懇切)(계주21b)(상훈35a), 【節】존절(撙節)(상훈28b), 【精】정신(精神)(상훈7a), 【制】법제(法制)(상훈12a), 【齊】경제(整齊)(계주27a), 【條】도건(條件)(상훈26a), 【朝】도령(朝廷)(상훈40b), 【至】지극(至極)(상훈9b)(계주25a), 【支】지당(支當)(상훈28b), 【盡】극진(極盡)(계주23a), 【嗟】차탄(嗟歎)(상훈16a), 【飭】틱녀(飭勵)(상훈22b), 【親】친척(親戚)(상훈7a), 【蕩】방탕(放蕩)(계주26a), 【特】특별(特別)(상훈16a)(계주31b), 【霈】방파(霧靄)(계주19b), 【風】풍속(風俗)(상훈30b), 【學】학문(學問)(상훈7a), 【刑】형벌(刑罰)(계주23b), 【惠】은혜(恩惠)(계주24a)(상훈18b), 【懷】회포(懷抱)(상훈35a)(계주26b), 【效】효험(效驗)(상훈16b), 【恰】흡당(恰當)(상훈43b)¹³

유사 의미 결합구조의 한자어들은 대부분 현대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등록된 어휘들로 이 당시뿐만 아니라 현대국어에서도 널리 쓰이는 한자어들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되지 않은 어휘로 ‘의방(依倣)(계주33a), 틱녀(飭勵)(상훈22b), 흡당(恰當)(상훈43b)¹⁴’이 있는데 이들은 이 당시의 문헌에서

12 ‘진조’(才操)는 현대어 ‘재주’의 중세어형이다. 이 ‘진조’가 ‘진주’로 음운 변화를 겪으면서 한자어 ‘才操’와의 관련성을 잃게 되었다.

13 「 」는 한문본의 漢字이고 ‘()’의 漢字는 필자가 추정한 漢字이다.

14 한문 원문 ‘恰’을 연해한 것이다. ‘恰’은 ‘마치, 꼭, 흡사’의 뜻인데, 여기서는 “庚경子조 𠂇 𠂇 二이十십이오 𠂇 六륙 年년이라.”에서와 같이 시간을 나타내는 문맥에 사용되었으므로 ‘꼭, 마침’ 정도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흡당하다’는 19~20세기 자료에

는 용례가 확인된다. ‘의방(依倣)’은 (무오연행록4: 22a)에 ‘틱녀(飭勵)’는 ‘(사문대의록1: 3a), (열성지장통기: 47a)’에, 그리고 ‘흡당(恰當)’은 ‘(낙천동운4: 37b)’에 그 용례가 보인다. 유일하게 ‘궁절(窮絶)(계주25a)’만이 용례가 확인되지 않는다.¹⁵ 언해자가 한문본의 한자가 포함된 이 당시 널리 쓰이던 유사 의미 결합구조의 한자어를 이용해 언해를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수식, 피수식 의미 결합구조”이다. 한문본에서 이동한 한자어 형태소에 수식기능이나 피수식 기능의 형태소를 보충한 구조이다. 이때는 한문본에서 이동한 한자어 형태소가 중심의미를 담당하고 이를 보충할 수 있는 의미를 지닌 한자어 형태소가 수식 또는 피수식 기능을 담당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예문 4는 『어제상훈언해』와 『어제계주윤(언해)』에 나타나는 수식 의미 결합구조의 한자어이다.

예문 4: 수식 의미 결합 구조

① 【諭】기유(開諭)(계주21b), ② 【述】계술(繼述)(상훈13a), ③ 【必】고필(期必)(계주21a), ④ 【幸】다행(多幸)(계주23a), ⑤ 【蓋】대개(大蓋)(상훈5a)【士夫】스태우(士大夫)¹⁶(계주25a), ⑥ 【答】답(對答)(상훈26a), ⑦ 【反】상반(相反)(계

‘흡당 흡다 翳當[한불자전(1880), 98], 형미의 의로 후덕 흡미 흡당 흡가 흡노라[(落泉登雲(1937)]’의 예만 보이는데, 이들 용례에서 ‘흡당 흡다’는 ‘합당하고 마땅하다’ 정도의 의미로 사용되어 『상훈언해』의 예와는 차이가 있다.

15 『표준국어대사전』에 등록된 ‘궁절’은 묵은 곡식은 다 떨어지고 햇곡식은 아직 익지 아니하여 식량이 궁핍한 봄철의 때를 뜻하는 ‘궁절(窮節)’이다. 『어제계주윤음(언해)』의 ‘궁절’은 “궁절한 바다 가온대 귀향 가는 이”라는 문맥으로 보았을 때 ‘궁절(窮絶)’을 의미한다.

16 ‘스태우(士大夫)’는 한문본의 ‘士夫’를 언해한 것으로, ‘士夫’는 ‘士大夫’와 같은 말이다. 옛 문헌에서 한자 주음(注音)으로는 ‘士々大대夫부’로 나타나다가 한자를 드러내지 않는 표기에서는 ‘스태우’로 나타나는 경우가 자주 보인다[예: 이제 스태우(今之之士々大대夫부)], (소학언해(1587), 5: 49b~50a)]. 전자는 물론 당시의 현실 한자음대로 표기한 것이지만 후자(‘스태우’)는 ‘士大夫’ 자체가 차용어로 들어와 차용 당시의 중국 발음이 반영, 계승된 표기라 할 수 있다.

주30a), ⑧ 【典】은던(恩典)(계주19b), ⑨ 【接】인접(引接)(상훈44a), ⑩ 【令】정령(政令)(계주28a), ⑪ 【誠】정성(精誠)(계주25a)(상훈6a), ⑫ 【目】도목(條目)(상훈7a), ⑬ 【廟】종묘(宗廟)(계주31a), 【要】중요(宗要)(12b), ⑭ 【祇】지기(地祇)(계주31b), ⑮ 【神】천신(天神)(계주31b), ⑯ 【教】하교(下教)(계주19b), ⑰ 【費】허비(虛費)(계주30a)(상훈29b)¹⁷

이때 결합한 수식사성 형태소는 예문 4에서 밑줄로 표시한 ‘開-, 繼-, 期-, 多-, 大-, 對-, 相-, 恩-, 引-, 政-, 精-, 條-, 宗-, 地-, 天-, 下-, 虛-’이다. 이 한자어 형태소들은 이 당시 어두에서 계열관계를 이루면서 한자어 단어 형성에 널리 쓰이던 형태소들이었음을 다음 예문 5를 통해 알 수 있다.

국어의 한자어 구성에서 한자어 형태소들은 나타나는 환경에 따라 다양한 의미 기능을 수행하지만, 어두라는 고정된 위치에서 후행하는 명사성 어근이나 서술사성 어근과 결합하여 수식 기능을 담당할 때, 일정한 의미를 가지고 계열관계를 이루는 경우가 있다. 언해자는 이러한 특정 환경에서 어느 정도 고정 의미를 획득한 수식사성 형태소가 포함된 이음절의 국어 한자어를 이용해 언해를 시도했다. 예문 5에서는 이 수식사성 형태소들이 결합한 17세기와 18세기 국어 어휘들을 제시했다.

예문 5

- ① 開-(밝히어): ⠁|도(開導) ⠁|(警民序: 3a), 開說 ⠁|(無諺: 27b), ⠁|유(開諭) ⠁|(무목왕경077), 開呈 ⠁|(朴諺中: 44a)
- ② 繼-(이어서): 계술(繼述) ⠁|(斯文3: 30a), 계장(繼葬) ⠁|(戊午燕行3: 58b), 繼嗣 ⠁|(詩諺9: 20b)

¹⁷ 「[]」는 한문본의 漢字이고 '()'의 漢字는 필자가 추정한 漢字이다.

- ③ 期-(획정해서): 期望 𩔃-(杜詩-中3: 21a), 期約 𩔃-(御內序: 4a), 期必 𩔃-(杜詩-中6: 37a), 期 𩔃(期限) 𩔃-(馬經下: 122a)
- ④ 多-(많이): 多難 𩔃-(詩謠19: 18b), 多謝 𩔃-(五倫全備1: 38a), 多失(多失) 𩔃-(嚴氏孝門: 8b), 多言 𩔃-(五倫全備2: 42b), 多憂 𩔃-(五倫全備4: 14a), 多罪 𩔃-(書謠5: 4b), 多捷(多捷) 𩔃-(嚴氏孝門, 4b), 多享 𩔃-(書謠5: 3b), 多險(多險) 𩔃-(嚴氏孝門: 3a), 多祐 𩔃-(詩謠19: 15a), 多慮 𩔃-(五倫全備3: 21a), 多病 𩔃-(五倫全備4: 23a), 多福 𩔃-(孟子栗谷2: 29b), 多占 𩔃-(五倫全備5: 11b), 多情 𩔃-(樂學拾零50), 多行 𩔃-(隣語7: 5b), 多幸 𩔃-(隣語1: 21a)
- ⑤ 大-(대체의): 大강(大綱)(家禮1: 38b), 大要(女訓上: 26b), 大端(女訓上: 28b), 大凡(警民重: 34a), 大意(家禮10: 49b), 大抵(胎產: 75a), 大體(朴諺下: 60a), 大臣(家禮1: 9a), 大舍(朴通中: 27b), 大夫(家禮4: 12a), 大君(捷解初8: 2a), 大仙(朴諺下: 24a), 大賢(家禮8: 19b)
- ⑥ 對-(대하여): 對揚 𩔃-(書謠5: 62b), 對答 𩔃-(蒙老7: 18a), 對敷 𩔃-(杜詩-中20: 44a), 對酌(對酌) 𩔃-(譯語上: 60a), 對敵(對敵) 𩔃-(倭語: 上39a), 對坐 𩔃-(捷新初6: 16)
- ⑦ 相-(서로): 相間 𩔃-(家禮10: 12a), 相去 𩔃-(家禮10: 9b), 相考 𩔃-(譯語上: 10a), 相談 𩔃-(捷解初2: 13a), 상반 𩔃-(家禮7: 17b), 相合 𩔃-(譯語下: 47b), 상접(相接) 𩔃-(捷解初6: 1a)
- ⑧ 恩-(은혜로운): 恩念(朴通中: 16b), 恩德(女訓上: 11a), 恩愛(家禮2: 1a), 恩養(女訓下: 14b), 恩義(警民重: 29a), 恩情(恩情)(家禮1: 13a), 恩澤(女訓上: 10a), 은혜(恩惠)(東新忠1: 56b)
- ⑨ 引-(끌어다): 引對 𩔃-(戊午燕行3: 61a), 引去 𩔃-(戊午燕行1: 22b), 引見 𩔃-(五倫全備7: 28b), 引壞 𩔃-(五倫全備1: 7a), 引導 𩔃-(同解上: 52b), 引惹 𩔃-(女四2: 8b), 引用 𩔃-(家禮8: 6b), 引誘 𩔃-(五倫全備1: 33b), 引接 𩔃-(杜詩-中22: 2a), 引證 𩔃-(斯文1: 23b), 引進(引進) 𩔃-(國조고사: 35a)

- ⑩ 政-(나라를 다스리는): 政(女訓下: 45b), 정부(政府)(무목왕정: 087), 정요(政要)(續自省: 24b), 정례(政體)(戊午燕行3: 37a)
- ⑪ 精-(참된): 정기(精氣)(馬經上: 53b), 정례(精禮)(東新孝2: 60b), 정수(精水)(馬經上: 91a), 정혈(精血)(胎產: 7b)
- ⑫ 條-(조리있는): 條건(條件)(家禮1: 序6a), 條列(어제훈서: 3a), 条定(條陳)(무목왕정: 110), 條例(無諺1: 1a)
- ⑬ 宗-(으뜸의): 宗國(家禮1: 17a), 종다(宗旨)(續自省: 11b), 宗師(어제훈서: 16b), 종정(宗正)(무목왕정: 066), 종요(宗要)(七千: 28b)
(종묘의, 王室의): 宗器(中庸栗谷: 23b), 宗廟(女訓上: 45a), 宗祀(女訓下: 13b), 宗臣(常訓: 4b), 宗人(家禮1: 35b), 宗朝(五倫全備5: 40b), 종실(宗室)(東新烈3: 79b)
- ⑭ 地-(땅의): 地火(火砲: 24a), 地氣(朴通下: 48a), 地道(家禮7: 21a), 地脈(朴諺下: 48a), 地分(朴通下: 53a), 地主(老乞上: 25b)
- ⑮ 天-(하늘의): 천조(天子)(東新忠1: 17b), 天朝(焰燐: 2a), 天氣(捷解初6: 12b), 天冠(天冠)(勸念: 32a), 天구(天臼)(馬經上: 75a), 天兵(天兵)(東新烈5: 8b), 天性(天性)(東新續孝: 11b), 天運(天運)(痘瘡上: 1b), 天花(天花)(老乞下: 22a)
- ⑯ 下-(아래로): 하가(下嫁) 𠂌-(東新烈2: 10b), 下顧 𠂌-(五倫全備8: 22a), 下落 𠂌-(增修無冤1: 16b), 하문(下問) 𠂌-(續自省篇: 5a), 下陷 𠂌-(隣語8: 8b), 하조(下詔) 𠂌-(무목왕정: 101), 下送 𠂌-(隣語7: 2b)
- ⑰ 虛-(헛된): 허당(虛張) 𠂌-(무목왕정: 206), 虛度 𠂌-(女四2: 17b), 허費 𠂌-(女訓下: 39b), 허송(虛送) 𠂌-(낙성비룡권1: 2b), 虛飾 𠂌-(家禮7: 31b)

예문 5의 수식사성 한자어 형태소들은 이 당시에 어두라는 고정된 위치에서 일정한 의미기능을 담당하면서 한자어 단어 형성의 구성 요소로 기능하고 있다. ‘開-, 繼-, 期-, 多-, 對-, 相-, 引-, 下-, 虛-’는 서술어성 한자어 어근과 결합하는 수식사성 한자어 형태소로 기능하고, ‘大-, 恩-, 政-, 精-’,

條-, 宗-, 地-, 天-’은 명사성 한자어 어근과 결합하는 수식사성 한자어 형태소로 기능한다.¹⁸

이 수식사성 형태소들 중 마지막의 ⑯ ‘虛-’는 다른 형태소들과 달리 이 당시에 이미 특별한 지위를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 ‘허일[虛事]’(捷解初5: 28a)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유어 ‘일’과도 결합하는 것을 보면 이 당시 이미 한자어 접두사성 형태소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현대국어에서 ‘虛-’는 접두사성 형태소로 생산적으로 기능하는 형태소이다. ‘虛구령, 헛걸음, 헛기침, 헛수고, 虛勢’ 등의 용례를 보면 고유어와 한자어 어근 모두에 결합 할 수 있는 접두사성 한자어 형태소인 것을 알 수 있다. ④ ‘多-’, ⑤ ‘大-’, ⑥ ‘對-’는 현대국어에 와서 접두사성 한자어 형태소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인다. ‘多-’는 ‘다방면, 다목적’ 등에서 나타나고, ‘對-’는 ‘대러시아, 대중국, 대정부’ 등에서 나타나고, ‘大-’는 ‘대승리, 대할인’ 등에서 나타난다.¹⁹

다음 예문 6은 『어제상훈언해』와 『어제계주윤음(언해)』에 나타나는 피수식 사성 형태소가 결합한 한자어들이다.

18 이 중 ‘期-’, 引-’, 條-’는 예문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약(期約)(계주23b), 인도(引導)(계주 27a), 빙건(條件)(상훈26a)’에서는 유사 의미 결합구조로 쓰였지만, 예문 4에서는 수식 의미 결합 구조로 쓰였다. 한자어 형태소는 그 의미 기능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환경에 따라 기능이 달라질 수 있다.

19 한자어 형태소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위치에서 다양한 의미 기능을 실현하지만, 국어의 단어 형성에서 그 위치와 의미 기능이 하나로 고정되는 경우가 있다. ‘생과실(生果實), 친부모(親父母), 불가능(不可能), 비현실적(非現實的)’과 같은 어휘들에서 ‘생(生)-’, 친(親)-, 불(不)-, 비(非)-’처럼 이미 존재하는 한자어에 어떤 의미를 첨가하는 기능으로 광범위하게 쓰이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어두에서 의미의 첨가를 담당하는 한자어 형태소들은 국어의 단어 형성에서 그 위치와 의미 기능이 고정되어 쓰이면서 국어 어휘부에서 ‘생일(生日), 친척(親戚), 불편(不便), 비리(非理)’ 등과 같은 이음절 한자어에서 쓰이던 한자어 형태소와는 구별되는 문법적 지위를 획득한다. 특히 어두에서 의미의 첨가를 담당하는 한자어 형태소로서 광범위하게 그 세력을 확장한 형태소들은 한자어 접두사성 형태소로 발전하게 된다.

예문 6

① 【勉】면계(勉戒)(상훈35a), ② 【體】체념(體念)(계주23a), ③ 【禁】금령(禁令)(계주20a), ④ 【義】의리(義理)(계주21a), ⑤ 【怨】원망(怨望) 𠂌-(계주33b), ⑥ 【諺】언문(諺文)²⁰(계주32a), ⑦ 【財】재물(財物)(상훈29b), ⑧ 【下】하민(下民)(계주26b), ⑨ 【慶】경소(慶事)(계주20b), 【政】정소(政事)(상훈33b)(계주27a), ⑩ 【眞】진서(眞書)²¹(계주32a), ⑪ 【黨】당습(黨習)(상훈7a), ⑫ 【飲】음식(飲食)²²(계주32b), ⑬ 【疑】의심(疑心)(상훈35b), ⑭ 【每】모양(每樣)(계주19b), ⑮ 【懼】름연(慄然) 𠂌-(계주24a), 【泛】범연(泛然)(상훈42a), 【倏】숙연(倏然)(상훈44a), 【洞】통연(洞然)(계주23a), 【判】판연(判然)(상훈31b), ⑯ 【主】주인(主人)(계주32a), ⑰ 【士】사조(士子)(계주33a), ⑱ 【引】인증(引證)(상훈35b), ⑲ 【施】시행(施行) 𠂌-(계주33a)²³

-
- 20 여기서 ‘언문’은 한글을 뜻한다. “경조(京兆)로 𠂌 야곰 진서와 언문으로 벗겨서 경외에 효 유 𠂌라(계주32a)”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자를 뜻하는 ‘진서’에 대응하는 단어로 쓰였다. 이 당시 ‘文’은 ‘조문(咨文)(무오연행록2, 56a), 칙문(策文)(무목왕정통녹, 219), 經문(經文)(家禮1: 7b), 계문(啓文)(무오연행록3, 1a), 公文(동문유해上: 42a), 關文(인어대방, 8: 7a)’에서처럼 ‘글, 글월’의 의미를 가진 피수식사성 형태소로 한자어 단어형성에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드물기는 하지만 ‘언문’에서처럼 ‘글자’를 뜻하는 의미로 한자어 피수식사성 형태소로 쓰이기도 했다.
- 21 ‘진서’는 한문본의 ‘眞’에 글씨를 뜻하는 書를 보충한 것이다. ‘진서’는 書體의 하나인 楷書를 이르는 말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한자를 언문에 대칭하여 일컫는 말로 쓰였다. 이 당시 ‘書’는 ‘簡書(시경언해9: 19a), 檄書(중간두시언해5: 11b), 教書(東新孝1: 5b), 答書(家禮3: 4b)’에서처럼 문서의 종류를 나타내는 한자에 후행하여 ‘문서’를 뜻하는 피수식사성 형태소로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예문의 ‘진서’처럼 글자를 뜻하는 피수식식사성 형태소로 쓰이는 경우도 많았다.
- 22 ‘음식’은 한문본의 ‘飲’에 피수식사성 기능을 하는 ‘食’을 보충한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음식’은 오늘날의 음식이 아니라 ‘마시는 식품’만을 뜻한다. 이 당시 ‘식’은 현대어에서처럼 먹고 마시는 것을 통틀어 일컫는 ‘먹거리’의 의미로 쓰이기도 했지만, 예문에서처럼 선행하는 한자어 형태소가 먹거리의 종류를 나타내고 후행하는 ‘食’은 ‘(먹거나 마시는), -라는 식품’의 피수식사성 기능을 갖는 경우가 있었다.
- 23 「 」는 한문본의 漢字이고 ‘()’의 漢字는 필자가 추정한 漢字이다.

예문 6에서 밑줄로 표시한 피수식성 기능 보충에 쓰인 한자어 형태소는 ‘-戒, -念, -令, -理, -望, -文, -物, -民, -事, -書, -習, -食, -心, -樣, -然, -人, -子, -証, -行’이다. 이 형태소들은 예문 7을 보면 이 당시 어미라는 고정된 위치에서 계열관계를 이루며 한자어 단어 형성에 널리 쓰이던 한자어 형태소인 것을 알 수 있다. 언해자는 이러한 피수식 기능 형태소가 포함된 음절의 국어 한자어를 이용해 언해를 시도한 것이다. 예문 7은 위의 한자어 형태소가 어미에서 일정한 의미를 가지고 17세기와 18세기 국어에서 피수식 기능의 한자어 어근으로 쓰인 용례이다.

예문 7

- ① -戒(-한 방식으로 경계하다): 劸戒 𩔗-(杜詩-中2: 70a), 規戒 𩔗-(五倫全備4: 38b), 금계(禁戒)(勸念: 19b), 命戒 𩔗-(孟子栗谷3: 8a), 齋戒 𩔗-(同解下: 11b), 懲戒 𩔗-(五倫全備5: 21a), 訓戒 𩔗-(五倫全備3: 36a), 감계(鑒戒) 𩔗-(續自省篇, 2b), 鑑계(鑑戒) 𩔗-(家禮2: 25a), 警戒 𩔗-(女四3: 7b), 敬戒 𩔗-(女四1a)
- ② -念(-하게 생각하다): 感念 𩔗-(杜詩-中8: 59a), 顧念 𩔗-(隣語8: 3a), 과념(過念) 𩔗-(낙성비룡2: 30a), 구념(口念)(勸念: 31a), 紀念 𩔗-(隣語4: 17b), 思念 𩔗-(전설곡, 참선곡: 2a), 色念 𩔗-(隣語10: 23a), 褒念 𩔗-(朴諺3: 15a) 恩念 𩔗-(朴諺中: 16b), 實念 𩔗-(書諺5: 1b), 一念 𩔗-(五倫全備8: 43a), 帝念 𩔗-(書諺1: 27b), 중념(憎念) 𩔗-(嚴氏孝門10a), 진념(塵念) 𩔗-(嚴氏孝門8a)
- ③ -令(-하는 명령): 教令(五倫全備4: 3a) 軍令(女四4: 37b), 禁令(漢清4: 32b) 翁令(朝令)(戊午燕行6, 29a), 禮令(家禮4: 1b), 律令(杜詩-中3: 62a), 命令(隣語1: 11b) 法令(家禮7: 13b), 王令(戊午燕行1, 25b), 將令(將令)(嚴氏孝門9a), 制令(家禮6: 34b) 정녕(政令)(무목왕경089), 詔令(무목왕경166)
- ④ -理(-한 이치/-의 이치): 道理(杜詩-中1: 35b), 倫理(家禮2: 1a), 妙理(妙理)(女訓下: 48b), 文理(女訓上: 27a), 物理(杜詩-中1: 18b), 事理(事理)(女訓下: 11b)

28b), 常理(五倫全備2: 7a), 生理(五倫全備1: 45b), 性理(어제훈서性道敎: 7a), 神理(五倫全備2: 45b), 義理(五倫全備1: 44a), 正理(五倫全備2: 10b), 情理(隣語6: 9b), 天理(女訓下: 23a)

⑤ -望(-하게 여기다): 죄망(責望) 𩔗-(斯文1: 3a), 가망(可望) 𩔗-(斯文1: 12b), 渴望 𩔗-(杜詩-中13: 2a), 기망(期望) 𩔗-(戊午燕行4, 12a), 난망(難望) 𩔗-(斯文1: 12a), 想望 𩔗-(杜詩-中21: 37b), 仰望 𩔗-(女四4: 48b), 옹망(願望) 𩔗-(續自省篇, 14b), 宽望 𩔗-(杜詩-中24: 59a), 怨望 𩔗-(杜詩-中3: 5a)

⑥ -文(-라는 문자): 언문(諺文)(倭語, 上38a), 篆文(無諺3: 85b), 전문(錢文)(나성비룡2, 58a)

⑦ -物(-한 물건): 𩔗물(冷物)(痘瘡下: 8a), 건물(乾物)(捷解初2: 8a), 果물(家禮7: 2a), 金物(家禮7: 5a), 藥物(家禮2: 5a), 衣物(家禮1: 10b), 財物(警民重: 16a), 錢物(老乞上: 25a), 節物(家禮10: 46b), 貨物(老乞上: 13b)

⑧ -民(-한 백성): 吏民(五倫全備5: 9b), 부민(府民)(戊午燕行1, 11b), 소민(士民)(무목왕경110), 庶民(孟子栗谷1: 5a), 小民(戊午燕行4: 23a), 臣民(御內2: 100b), 人民(御內2: 94a), 賊民(孟子栗谷4: 5b), 촌민(村民)(嚴氏孝門2a), 下民(孟子栗谷1: 50a), 海民(어제훈서: 23a), 鄉民(女四4: 62a)

⑨ -事(-한 일): 가사(家事)(語錄重: 9b), 件事(語錄重: 37a), 경사(慶事)](女訓下: 19a), 故事(老乞下: 63a), 公事(朴通下: 14b), 國事(家禮9: 37a), 萬事(捷解初4: 29a), 祀事(家禮10: 28a), 祥事(家禮9: 25a), 王事(家禮9: 37a), 祭事(家禮10: 29a), 宗事(家禮4: 14b), 廟事(家禮1: 10b), 喜事(朴通上: 24a)

⑩ -書(-한 글씨): 墨書(漢清2: 5b), 細書(악학습령, 864), 正書(譯語보, 11b), 朱書(漢清2: 5b), 竹書(杜詩-中10: 31b), 眞書(隣語9: 3a), 청서(淸書)(戊午燕行5, 52a), 草書(捷蒙1: 1b), 鶴書(五倫全備5: 38b), 楷書(譯語보, 11b)

⑪ -習(-한/-하는 습성): 구습(舊習)(완월38, 3b), 氣習(御內2: 95a), 소습(土習)(續自省篇, 24b), 소습(私習)(韓佛, 391), 속습(俗習)(완월77, 27a), 惡習(韓佛,

3), 니습(吏習)(韓佛, 286), 하습(下習)(韓佛, 81)

⑫ -食(-라는 식품): 薑食(論語栗谷2: 61b), 穀食(譯語上: 23b), 麵식(家禮10:

11b), 米食(家禮10: 11b), 匾食(朴通中: 6b), 肉食(捷解改3: 11b)

⑬ -心(-한 마음): 感心(感心)(斯文1: 32b), 戒心(孟子栗谷2: 55a), 고심(苦心)(續自省篇, 18b), 공심(公心)(斯文1: 20b), 寛心(伍倫全備4: 14b), 乞心(欺心)(嚴氏孝門23b), 𠂇心(私心)(국조고사, 45b), 誠心(伍倫全備8: 5a), 愁心(同解下: 10a), 惡心(隣語5: 1b), 安心(첩신-개1: 6b), 願心(朴新3: 08b), 疑心(청노2: 16a), 貪心(伍倫全備1: 57a), 恒心(孟子栗谷1: 35b)

⑭ -樣(-한 모양): 各樣(漢清8: 57a), 모양(模樣)(方言申, 18b), 時樣(朴新2: 32b), 字樣(朴通中: 41a), 花樣(朴新1: 29b)

⑮ -然(-한 듯하다)²⁴: 無연(鏗然) 𠂇-(東新孝5: 51b), 慨然 𠂇-(家禮9: 34b), 懇然 𠂇-(家禮10: 47a), 恬然 𠂇-(家禮7: 17a), 當然 𠂇-(女訓上: 25b), 徒然 𠂇-(捷解初9: 1a), 眇然 𠂇-(家禮9: 26a), 信然 𠂇-(朴通下: 61b), 自然 𠂇-(語錄初: 6a), 漚然 𠂇-(女訓下: 23a), 忽然 𠂇-(朴諺下: 48a), 豔然 𠂇-(女訓上: 28a), 曉然 𠂇-(家禮圖: 18b)

⑯ -人(-한 사람): 佳人(악학습령, 417), 古人(악학습령, 88), 官人(伍倫全備1: 2b), 老人(악학습령, 602), 聖人(악학습령, 4), 小人(伍倫全備1: 16b), 野人(악학습령, 426), 漁人(악학습령, 311), 遊人(악학습령, 121), 賢人(伍倫全備1: 20b), 後人(악학습령, 436)

⑰ -子(-한 사람): 客子(악학습령, 803), 男子(악학습령, 83), 娘子(伍倫全備2: 26b), 女子(家禮3: 17a), 妮子(譯語上: 27b), 童子(家禮6: 13a), 妹子(伍倫全備1:

24 ‘연(然)’은 ‘한 듯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선행하는 한자어에 서술사성 의미를 보충한다. 이 당시 ‘연’은 다양한 한자에 결합하여 ‘한 듯하다’라는 서술사성 의미의 한자어를 형성했다. 그러나 ‘然’과 결합한 한자어는 서술사성 의미만을 가질 뿐이어서 국어에서 온전한 서술어 어간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과 결합했다. 이 당시 모든 문헌에 등장하는 ‘然’과 결합한 한자어는 거의 예외 없이 ‘-한-’과 결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0b), 婢子(御內2: 23a), 士子(伍倫全備1: 3b), 兒子(伍倫全備1: 13b) 해8: 16a)

⑯ -證(-한 방식으로 증명하다): 引證 証-(家禮1: 40a), 隣證 証-(增修無冤錄1:

14a), 見證 証-(增修無冤錄1: 16b), 干證 証-(增修無冤錄1: 16b), 照證 証-(增修無冤錄3: 87b), 인증(認證) 証-(斯文1, 31b)

⑰ -行(-한 방식으로 행하다): 兼行 証-(伍倫全備1: 25a), 代行 証-(隣語4: 23b),

奉行 証-(伍倫全備5: 29a), 設行 証-(隣語1: 22a), 往行(女四3: 48b), 遷行 証-(隣語7: 17a), 替行 証-(상훈, 4b), 誓行 証-(孟子栗谷3: 74a), 衡行 証-(孟子栗谷1: 50b)

‘-戒, -念, -望, -然, -証, -行’은 어미에서 피수식사성 형태소로 기능하는 한자어 서술사성 어근(VR)이고, ‘-令, -理, -文, -物, -民, -事, -書, -習, -食, -心, -樣, -人, -子’는 어미에서 피수식사성 형태소로 기능하는 한자어 명사성 어근(NR)이다. 이들은 모두 한자어 형태소 본래 의미를 간직한 어근으로 기능한다.

그런데 이 중 어미라는 고정된 위치에서 일정한 의미 기능을 담당하면서 ‘-然, -事, -人, -物, -心’은 현대국어에서 접미사성 한자어 형태소로 발전했다. ‘-然’은 ‘學者然, 君子然, 大家然’에서처럼 서술성이 없는 어기에 결합하여 서술성을 부여하는 접미사성 한자어 형태소로 쓰인다. 그리고 ‘-事’는 ‘관심사, 세상사’에서, ‘-人’은 ‘현대인, 사회인’에서, ‘-物’은 ‘아동물, 청과물’에서, ‘-心’은 ‘애국심, 영웅심’에서 생산적으로 쓰이는 한자어 접미사성 형태소이다.

수식 의미와 피수식 의미 결합 구조의 원문보충어들은 모두 이 당시 계열 관계를 이루던 수식사성 형태소와 피수식사성 형태소에 의해 형성된 한자어임을 확인했다. 따라서 이들 어휘들도 국어 어휘체계 편입 가능성이 높은 한자어들임을 알 수 있다.

V. 결론

이 글은 장서각 소장 영조어제 언해서를 대상으로 주독자총에 따라 나타나는 이음절 한자어의 양상을 검토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영조어제 언해서 중 특수한 계층에게 특별한 교육을 위해 간행한 『어제상훈언해』와 일반 대중을 상대로 대중적인 내용을 전파하기 위해 간행한 『어제계주윤음(언해)』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한문본에서는 단어로 기능하던 한자가 언해 과정을 통해 국어의 비자립 한자어 형태소가 되면서 언해자는 이러한 비자립성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한자어 형태소를 결합하여 이음절 한자어를 형성했다. 언해문에 나타나는 한자의 이음절화는 한문본의 한자가 국어의 어휘체계로 편입되는 중요한 방식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이음절 한자어들이 한문본의 한자를 어떻게 국어화했는지를 살피기 위해 한문본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원문일치어, 원문보충어, 원문불일치어로 나누었다.

언해는 대상으로 하는 주독자총에 따라 그 방향이 결정되지 않을 수 없다. 한문본을 어느 정도로 국어화하여 제공할 것인가는 그것을 읽는 독자의 한문 능력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해문에 나타나는 한자어도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상 독자가 한문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한 국어화한 한자어를 이용해 언해문을 작성했을 것이고, 예상 독자가 한문에 익숙한 경우에는 그 수준에 걸맞게 한문본 한자들이 그대로 언해문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Ⅲ장에서 『어제상훈언해』와 『어제계주윤음(언해)』의 한자어를 비교해 본 결과, 『어제상훈언해』에는 『어제계주윤음(언해)』에 비해 원문일치어의 비율이 높았고, 『어제계주윤음(언해)』에는 『어제상훈언해』에 비해 원문보충어와 원문불일치어의 비율이 현저히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이 세 유형의 한자어

들이 국어화한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언해자는 세자, 세손 등 후대왕의 교육용으로 작성된 『어제상훈언해』의 언해에는 한문본의 한자를 그대로 노출해 언해문을 작성한 반면에, 일반 백성을 대상으로 하는 『어제계주윤음(언해)』의 언해에는 이 당시 국어화한 한자어를 이용해 언해문을 작성한 것이다.

IV장에서는 『어제계주윤음(언해)』에 상대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원문불일치어와 원문보충어가 그 당시 국어 어휘체계 편입 가능성성이 높은 한자어들임을 입증했다. 원문불일치어는 언해자가 한문본의 한자를 살릴 한자어를 생각해 내지 못하자 자신의 언어 직관에 기대어 그 당시 통용하던 국어 한자어를 이용해 언해를 시도했다. 따라서 이들은 위의 세 유형의 한자어 중 국어화한 한자어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원문보충어는 유사 의미 결합 구조와 수식, 피수식 의미 결합 구조로 나눌 수 있었다. 유사 의미 결합 구조의 한자어들은 대부분 현대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등록된 어휘들로 이 당시뿐만 아니라 현대국어에서도 널리 쓰이는 한자어들이었다. 그리고 수식, 피수식 의미 결합 구조의 원문보충어들은 모두 이 당시 계열관계를 이루던 수식사성 형태소와 피수식사성 형태소에 의해 형성된 한자어임을 확인했다. 따라서 이 어휘들도 국어 어휘체계 편입 가능성이 높은 한자어임을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어제상훈언히(2000, 장서각한글자료해제, 장서각 2-1855).

어제계쥬륜음(2000, 장서각한글자료해제, 장서각 2-1836)

2. 논저

국립국어연구원(편),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1999.

김백철, 「영조의 윤음과 왕정전통 만들기」, 『장서각』 26, 2011, 10~67쪽.

남광우, 「中世国語 漢字語에 대한 基礎的 研究」, 『한국어문』 1, 1992.

노명희, 『현대국어 한자어 연구』, 서울: 2005,

송기중, 「現代国語 漢字語의 構造」, 『한국어문』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심재기, 「漢字語의 구조와 그 조어력」, 『국어생활』 8, 1987, 25~39쪽

안소진, 「한자어 형태론의 제 문제와 어휘부」, 『한국어학』 62, 2014, 373~394쪽.

이영경, 「영조대의 교화서 간행과 한글 사용의 양상」, 『한국문화』 61, 2013, 249~278쪽.

이익섭, 「漢字 造語法의 類型」, 『이승녕박사 송수기념논총』, 1968.

이익섭, 「漢字語의 非一音節 單一語」, 『김재원박사 환갑기념논문집』, 1969.

이익섭, 「국어조어론의 몇 문제」, 『동양학』 5, 1975, 155~165쪽.

이현주, 「한자어 어기와 고유어 접사성 형태소의 결합에 대한 통시적 고찰」, 『정신문화연구』 141, 2015, 95~120쪽.

이현주, 「『어제속자성편(언해)』 이음절 한자어의 특징」, 『정신문화연구』 145, 2016, 127~150쪽.

전광현, 「근대국어 한자어에 대한 기초적 연구(I)」, 『한국어문』 1, 1992.

홍윤표(편), 『17세기 국어사전』, 서울: 태학사, 1995.

허웅, 『우리 옛말본 15세기 국어 형태론』, 서울: 샘문화사, 1975.

허웅, 『15·16세기 우리 옛말본의 역사』, 서울: 탑출판사, 1992.

국문초록

이 논문은 장서각 소장 영조어제 언해서를 대상으로 주독자층에 따라 이음절 한자어가 나타나는 양상을 검토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언해서 중 주독자층이 상이한 『어제상훈언해』와 『어제계주윤음(언해)』를 대상으로 언해문에 나타나는 이음절 한자어를 검토 대상으로 삼았다.

언해문에 나타나는 이음절 한자어는 한문본의 한자가 국어 어휘체계로 편입되는 중요한 방식 중의 하나이다. 이음절 한자어들이 한문본의 한자를 어떻게 국어화했는지를 살피기 위해 한문본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원문일치어, 원문보충어, 원문불일치어로 나누었다. 언해자는 언해의 대상으로 삼은 주독자층의 한문 이해 수준을 고려하여 이 세 가지 유형의 한자어들을 이용해 언해문을 작성했다. 세자, 세손 등 후대왕의 교육용으로 작성된 언해서인 『어제상훈언해』는 한문본의 한자를 그대로 노출해 언해문을 작성했기 때문에 원문일치어의 비중이 높았다. 반면에 일반 백성을 대상으로 작성된 『어제계주윤음(언해)』에는 이 당시 국어화한 한자어인 원문보충어와 원문불일치어의 비중이 높았다. 원문보충어와 원문불일치어는 이 당시 국어 어휘체계 속에 편입된 한자어들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을 대상으로 작성된 윤음 언해에 높은 비중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투고일 2024. 9. 20.

심사일 2024. 11. 12.

제재 확정일 2024. 11. 19.

주제어(keywords) 국어화(Koreanization), 원문보충어(supplemental words to the original text), 원문불일치어(words that do not match the original text), 원문일치어(original text identical words), 주독자층(main readership), 한자어(Chinese characters),

Abstract

Appearance of Sino-Koreans in Yeongjo's Eoje Based on
Main Readership: Focusing on Two-syllable Sino-Koreans in
『Eojesanghuneonhae』 and 『Eojegyejuyuneum (Eonhae)』

Lee, Hynjoo

This study examines the appearance of two-syllable Chinese characters based on the target audience of the translated version of King Yeongjo's *Yeseo* held by Jangseogak. Among the translated books, 『Eojesanghuneonhae』 and 『Eojegyejuyuneum (Eonhae)』, which have different target audiences, were examined for two-syllable Chinese characters in the *Eoje* text.

Chinese characters in Chinese texts are incorporated into the Korean lexical system via disyllabic Chinese characters in translations. To examine how Chinese characters in Chinese text were Koreanized into dichotomous Chinese characters, they were categorized into "words identical to the original text," "words supplementing the original text," and "words not identical to the original text" based on their relevance to the Chinese text.

The translator created the translated text using the three types of Chinese characters mentioned above while considering the target readers' level of Chinese-character understanding. 『Eojesanghuneonhae』, which was translated for educational purposes for later kings, such as the crown prince and crown grandson, had a high proportion of "original text identical words" because the Chinese characters in the Chinese text were directly exposed when writing the interpretation. Meanwhile, in 『Eojegyejuyuneum (Eonhae)』, which was translated for the general public, the proportion of "supplementary words to the original text" and "words that do not match the original text," which were Chinese characters that had been nationalized at the time, is high. "Supplemental words to the original text" and "words that do not match the original text" are Chinese characters incorporated into the Korean vocabulary at the time; hence, they appear with a high proportion in translations of *Yun-eum* written for the general public.